

기고문-어촌수산건설현장 중대산업재해, 아차사고 예방부터

조 정철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어촌수산부장
 © 승인 2022.12.01 22:13



정정철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어촌수산부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중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2020년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요양재해자가 10만 8,379명(사망 2,062명, 부상 9만 1,237명, 업무상 질병요양자 1만 4,816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요양재해자는 전체의 24.7%인 2만 6,799명(사망 567명)이며 2014년 이후 요양재해현안율이 계속 증가 추세이다.

사고 발생형태는 떨어짐 32.5%, 넘어짐 17.2%로 절반을 차지하며,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률이 높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투입 근로자, 작업 착수 및 종료 1시간 전후, 월요일 오전 및 금요일 오후, 해당 공종 마무리 작업시에 발생빈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차사고(Near Miss)는 작업자의 부주의나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전조증상을 말한다.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1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유사한 원인으로 일어날 뻔한 아차사고가 300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에서는 안전보건 중장기 전략계획수립,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안전업무조치 업무이행 절차서 정비, 아차사고 사례공모전, 분기별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공모전 등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노력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이창훈)에는 전국 93개 지사 중에서 유일하게 어촌수산부가 있다. 이곳에서는 고성 광역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반암항,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다양한 어촌수산 해양 분야의 건설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현장은 아차사고의 위험이 높은 바닷가나 해상작업이 주를 이룬다.

영북지사에서는 이러한 어촌수산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아차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주자-시공사-근로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본사 안전경영실에서도 주관하는 2021년 아차사고 공모전에서 우수사례(아야진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됐고, 2022년에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공모전에서 2분기(반암항 어촌뉴딜300사업) 및 3분기(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고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기만 하여도 아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정정철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어촌수산부장 | webmaster@kfrda.go.kr